

## 반려동물 - 고양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양이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필자도 오랫동안 고양이를 키워왔는데 볼 때마다 귀엽고 새침하며 종종 우스꽝스럽고 장난도 좋아하며 이들이 즐거나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육식동물로서 온몸이 사냥을 위해 존재하며 고도의 운동신경을 타고났기 때문에 같은 몸집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소심한 구석이 있는 매우 희한한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사람과 같이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부터이고 고대 이집트에서 신성시 여겨진 동물로 당시에는 사람으로부터 숭배받는 동물이었습니다. 이후 쥐를 잡는 용도로도 키워졌다가 현재는 귀엽고 매력적인 외모와 고양이만의 독특한 행동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랑 받는 반려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작지만 강인하고 유연성과 반사신경이 매우 뛰어나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는 육식동물로서 현재 약 70여 종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쥐와 새, 파충류 및 곤충 등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선 매우 민첩한 몸놀림이 필요하고 이러한 습성이 남아 현재도 작은 놀이기구, 즉 레이저 포인터나 줄, 작은 장난감, 굴러다니는 공 등을 갖고 놀아주면 무척 좋아합니다.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던 이유로 하루에도 여러 마리를 먹어야 했기 때문에 고양이는 본래 끊임없이 사냥을 해야 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살면서 고양이 전용 펫푸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미, 형제자매 그리고 사람과도 끊임없이 장난을 치며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떤 목표물을 향해 공격하기 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선 목표물에 집중하며 몸을 웅크린 다음 엉덩이를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며 돌진 타이밍을 맞추다가 때가 되면 재빠르게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신체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워낙 유연성이 뛰어나 자기 키의 5배가 넘는 높이를 가볍게 뛰어오를 수 있고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순식간에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거나 발톱을 세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 또한 매우 뛰어나서 아주 좁은 담장 위를 쉽게 걸어 다니며 수 미터의 높은 곳에서 거꾸로 떨어지더라도 특유의 유연성과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신체 구조로 바닥에 안정적인 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귀 안쪽에 있는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 고양이는 개와 사람처럼 차멀미나 뱃멀미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유연성으로 고양이는 얼굴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비록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사람에 비해 떨어지지만 훌륭한 사냥꾼답게 아주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밝을 때는 너무 많은 빛이 눈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공이 일자로 줄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빛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흰자를 거의 덮을 정도로 커져 밤에도 매우 잘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처 흡수되지 못한 빛이 있더라도 망막 뒤에 특수한 세포가 있어 빛을 반사시켜 다시 한 번 물체의 형상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특수한 세포층을 타피텀(tapetum)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어두운 밤에 고양이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눈동자만 반짝이는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후각도 무척 발달했습니다. 우선 후각 세포의 수가 사람보다 5~10배 더 많고 음식 이외에도 자신의 영역과 사람을 후각으로 구별합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잘 먹지 않기 때문에 후각을 손상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 감기 등에 걸리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청각도 매우 발달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보다도 뛰어난 청각을 가진 고양이는 먹이인 쥐들이 내는 미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귀를 거의 180도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나는 갖가지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수영은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 눈에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볼 수가 없어 수영 끝으로 물체를 확인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거나 무언가에 관심이 집중될 때 수영이 정면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턱, 입술, 뺨 그리고 꼬리 아래쪽에 특수한 부위가 있어 분비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 냄새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안의 물건 등 각종 "소유물"에 자신의 냄새를 묻혀 영역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다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은 무척 민감합니다. 발바닥이 예쁘다고 손으로 만지면 바로 빼며 싫어하고 계속 만지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은 털이 나 있는 피부보다 두껍지만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사람과 유사한 땀샘이 있는 곳은 발바닥뿐입니다. 이 땀샘은 발바닥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여 민감함을 유지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 자체가 폭신폭신하여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냥할 때 소리내지

않고 사냥감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양이의 발톱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발가락 안에 숨겨져 있는데 사냥을 하거나 장난칠 때 또는 스크래칭을 할 때 발톱이 나옵니다. 스크래칭은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 이외에 발톱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최대한 높게 긁을 수 있도록 집안에 스크래칭 도구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사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화가 났을 때에는 꼬리 털이 부풀어 올라 좀 더 크게 보입니다. 편안한 경우는 늘어져 있고 기분이 매우 좋거나 사람에게 다가갈 때 몸을 비빌 때는 꼬리가 일자로 높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면 흔히 "가르릉"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특히 고양이가 편안하게 있을 때 목덜미나 뺨을 만져주면 주로 들을 수 있는데 행복감을 느낄 때 이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신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는지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대 옆에 보조 성대를 진동시켜 이 소리를 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혈액의 움직임으로 이 소리가 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횡격막과 후두 근육에서 일어나는 수축운동으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심지어 고양이가 매우 아픈 경우 나기도 하는데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스로 행복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고양이는 잠이 무척 많은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일생의 절반 이상을 잠을 자며 보내는데 대개, 하루 15시간 이상을 자거나 졸면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식사, 화장실 시간을 갖고 장난을 치거나 그루밍을 합니다. 고양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매우 평화로워 보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휴식을 취하는 장소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장소이고 주로 높고 따뜻한 곳을 선호합니다. 약간 추운 장소라면 몸을 둥글게 말아 머리를 배 쪽으로 넣고 자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몸을 쭉 편 형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잠을 청하는데 주로 높은 곳과 따뜻한 곳을 선호합니다.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매우 유연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우선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펴서 관절과 근육을 풀어 주는데 이때 앞다리는 바닥에 고정시키고 엉덩이를 높이 들어 편 다음 힘을 쥐서 기지개를 켵니다. 이후 등을 아치형으로 높게 들어온 몸을 늘어 편 다음 하품을 하는 것으로 기지개를 마칩니다.

고양이는 과거에 쥐를 잡아먹던 본능이 남아 오늘날에도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평균 밤낮으로 약 15회에 걸쳐 식사를 합니다. 맛을 느끼는 미각이 발달하지 않아 주로 음식의 냄새를 통해 좋아하는 음식을 구별합니다. 고양이는 주위 공간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어야 마음 놓고 식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 즉 시끄럽거나 낯선 사람이 옆에 있는 경우 또는 낯선 공간에서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예민한 고양이의 경우 밥그릇의 상태나 위치가 바뀌어도 잘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의 온도는 약 40도 정도로 체온 정도에서 가장 선호하며 차가운 음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이 화장실에 가까이 있어도 밥을 잘 먹지 않으므로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조상은 본래 사막 출신이기 때문에 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은 몸무게 kg당 약 40mL 정도로 개에 비해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 방광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물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신기하게도 물그릇의 물을 먹는 것보다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흐르는 물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물을 잘 먹지 않는 경우는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 고양이가 먹을 수 있게 하거나 고양이 전용 흐르는 급수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매우 깨끗한 동물입니다. 식사한 후에 손으로 얼굴을 닦거나 그루밍을 통해 몸 구석구석을 살살이 핥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몸단장을 위해 하루에도 수 시간을 소비합니다. 화장실 습관도 마찬가지로인데 용변을 본 후 그 자리를 파묻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후 한 달만 되어도 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새로 분양받아 키우는 입장에서는 무척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손으로 바닥을 긁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장실에 데려다주면 앞으로 그곳에서만 용변을 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용변 보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을 싫어하므로 뚜껑이 없이 가려져 있는 화장실이 좋고 조용하고 안전하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무척 많습니다. 어린 고양이의 경우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참견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경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예외 없이 근처에 와서 같이 놀려고 하거나 방해(?)합니다. 이렇게 참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악의가 없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그저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다가와 키보드에 누워버리거나 모니터를 가리고 마우스 커서를 보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고양이가 하던 데로 그냥 두게 마련입니다. 또한 집안에서 살아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기척이 나면 예외 없이 근처로 가서 귀를 쫓긋하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매력에 심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닫힌 문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 탐색하는 것을 즐깁니다. 만일 고양이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 문을 닫아 버리면

문을 열어달라는 고양이의 소리를 온 종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이가 하는 특이한 행동 중에 소위 “꼭꼭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 어미 젖을 빨 때 손으로 어미 고양이 배를 꼭꼭 누르며 젖을 빠는 행동이 커서도 남아 있는 것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사람의 무릎이나 배에 올라와 꼭꼭 누르는 행동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꼭꼭 누르는 행동은 앞발을 교대로 움직이며 힘을 주는 타이밍에서 종종 발톱을 내어 누르고 이 행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마사지라고도 부르는 이 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무척 편안해지기도 모르게 고양이를 쓰다듬게 됩니다. 이 꼭꼭이를 하는 경우 드물지만 발톱에 의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발톱 손질을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또한 밤에도 활동적인 동물이라 사람이 잘 때 혼자 뛰어다니는 행동을 종종 합니다. 이를 우리는 “우다다”라고 부르는데 요란한 경우같이 사는 사람의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과거 사냥 본능이 현재에도 남아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저녁에 고양이랑 실컷 놀아주어 미리 에너지를 소비시키거나 자기 전에 간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양이를 보고 “걸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는 사냥꾼으로서 신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면이 있고 귀여우면서 능청스럽고 걱정이 없어 보이며 언제나 사람에게 평화로움과 함께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다른 반려동물들에 비해 쉬울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무척 재미있습니다. 우주에는 매우 많은 영특한 종족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고양이의 지배를 받는다는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우리는 이를 보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불행에서 탈출하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음악과 고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

